

범룡스님은

한국불교 대표적 선지식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 ‘고요한 바다’ ‘침묵결백한 성품’ ‘철저한 수행자’ ‘수행의 실천가’

범룡스님을 모시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스님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 은종일 기도 단 한마디조차 없을 때가 다반사라고 한다. 연로하신 까닭에 지금은 논밭을 일구시지 않지만 3년전까지만 해도 하루종일 흙속에서 사셨다. 상좌 성팔스님은 “큰스님의 시봉이 됐다가 어떤 스님이 발우를 선물하며 저보고 행복한 늙이라고 하데요. 그런 큰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는 말이죠”라고 술회했다.

범룡스님을 시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팔스님이 범룡스님께 들었던 말씀은 “아상을 버리고 공부에 열중하라. 경을 알고 참선을 하는 게 좋다”는 단 한마디뿐이다.

비로암 주지 수련스님은 “20년 가까이 스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스님께서 손수 다하시니 해드릴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늘 조용하시면서도 철저한 수행을 하시면서 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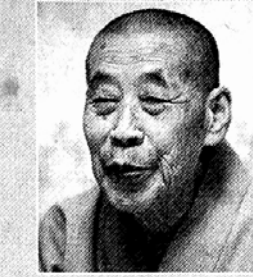
(佛)하는 것”이라며 수행정진에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했고, 스스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비로암 주지 초기에는 논과 밭에서 하루를 보낼 정도였다고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를 견뎌내는 제자가 없을 정도였을까.

스님의 이런 구도열은 젊어서 이미 그 분모습을 드러냈었다. 한암스님에게서 참선과 경전을 공부 한 후 어느 해인가 화두를 참구하며 오대산에서 부산 법어사까지 걸어서 내려갔다. 옛 조사들이 일보일배(一步一拜)를 하면서 도를 찾으려 했다는 데 절은 못할 망정 걸어서라도 가야겠다는 굳은 구도심에서였다.

뿐만 아니다. 스승과 경전에 대한 애정은 구도심만큼이나 깊었다. 범룡스님이 한암스님 아래서 공부하던 당시 <화엄경>에 우리말로 토를 달아놓은 것이 없던 때였다. 범룡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화엄경>에 토를 달겠다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화엄경 정요>를 붓글씨로 정리해서 한암스님께 드렸고, 한암스님은 이를 바탕으로 토다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범룡스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어려웠다. 스승의 뜻을 물어둔다는 것도 제자로서 도리가 아니었지만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한암스님의 토



심 그대로 사시는 모습 자체가 저희에게는 수행의 귀감이지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정당 간부들이 범룡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비로암을 다녀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참 수행자를 봤다”고.

1914년 평북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19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 38년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유점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4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수덕사 법어사 해인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심안거를 성만했다. 80년 동화사 주지, 94년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77년부터 지금까지 동화사 비로암에서 주석해 오고 있다.

화두와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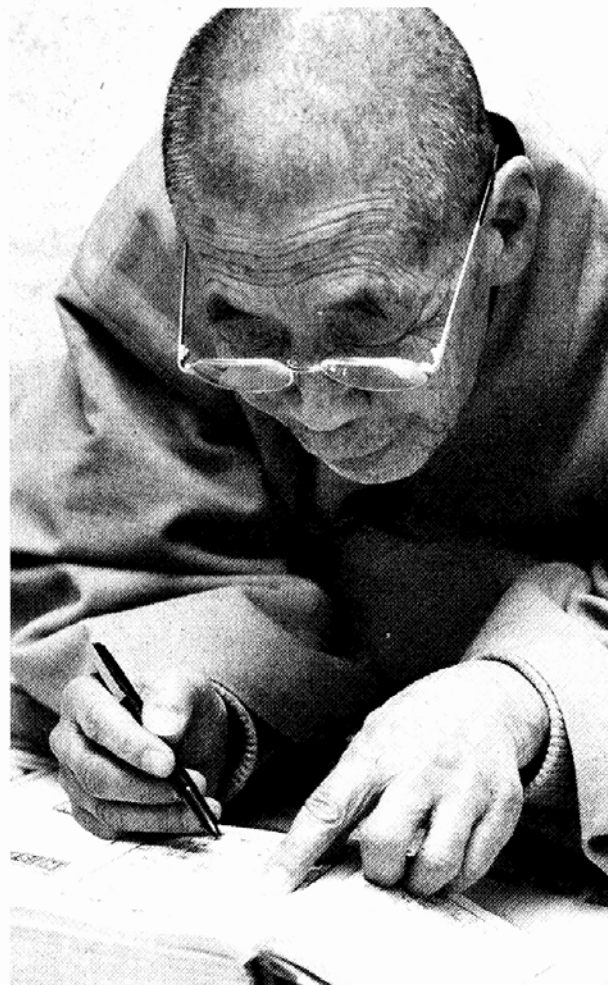
그 틈새로

망상이 나오는 법

가 달린 <화엄경>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원사에 보관돼 있던 한암스님이 쓴 책을 가져와 영인해냈다. 출판에 위해 세 달 이상을 비로암에서 대구 시내의 출판사까지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타면서 끼니도 거른 채 영인작업에 매달린 결과였다. 화엄경의 이치를 알리기 위해 98년에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씩 ‘화엄경산림법회’를 열고 화엄사상을 펴기도 했다.

상좌 수련스님(비로암 주지)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원력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원사까지 가서 책을 가져오고, 스승의 입적에 한치라도 누가 될까봐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공부하는 불자들을 위해 한



말씀 더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부처되면 저절로 알게 될텐데 물을 게 또 있나”

그러면서 스님은 또 <초발심자경문>을 펼쳐시더니 책 끝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권여은근수선도(勸女堅修善道) 하나니 속성불과제미륵(速成佛果濟迷倫)이다. 금생악부종사어(今生若不從斯語)하면 후세당연한단(後世當然復萬端)하리라. 간찰히 권 하나니 선도(善道)를 닦아 불과(佛果)를 빨리 얻어 번뇌에서 해매는 중생을 제도하라. 금생에서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에 한탄이 클 것이다. 부처님 법문은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는 게지 못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영영 모르게 되지. 듣기만 해도 좋다는 신심으로 들으면 차차 알아지는 게라.”

눈으로 뒤덮인 비로암을 뒤로하면서 허공을 바라보셨던 스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다. ‘공간처럼 비워라. 그래야만 가득 채울 수 있다.’ 간찰한 마음으로 불법을 따르라는 스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나마도 깨우치지 못했을 출발한 기차가 서울에 도착할 무렵이었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지행스님

먹항기가 그득한 연꽃 한 송이가 통영에서 여기 보령까지 배달되었다.

“그 얼마만큼의 거리로 살던 함께 청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글귀와 함께 그 그림을 내 방, 내 눈 높이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리워하면서 그 작품을 내내 감상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는 말과 글을 승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일러 ‘작품’이라고도 하고 창작이라고도 한다.

그 작품의 깊어지는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고귀한 매력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글과 작품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느끼는 감성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글을 읽은 사람에게, 아니 어떤 작품을 함께 감상할 경우 꼭 그 느낌을 물어보는 것도 얼마만큼 나와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 공감을 나눌 수 있을 때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환희심을 느끼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감히 남나를 수 있을 것이다.

지행스님, 남도의 끝자락 통영에서 먹항에 취해 붓을 놓지않고 살아가고 있는 스님이다. 붓을 놓지않고 정진하고 있지만 세간에 떠들석하게

붓글씨 숨겨 숨은 실력자

언제나 해맑은 미소

이름을 내걸고 전시회를 하거나 그룹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까지 본인의 이름을 내놓지는 않는, 숨은 실력자이다. 어쩌다 한번씩, 아니 해가 바뀌게 되면 연하장용으로 글씨를 보내주는데 그 글씨는 이름을 내걸고 요란하게 거듭 전시회를 하고 있는 스님들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올해는 언제 또 습득을 했는지 글씨가 아닌 그림으로 안부를 전해왔다. 스님을 생각하면 먹항기 이전 코스모스 꽃을 연상하게 된다. 내가 스님께 지어준 또 하나의 이름이다.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지천으로 피어오르는 운문의 도량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그만큼 스님은 순박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맑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도 스님은 그냥 그 마음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어 만만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내 몸이 쪼들거리는 딱한 기운들이 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지행스님과 나는, 두사람 만이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하나 있다. 강원 때의 일이다. 화엄경 졸업반 때는 졸업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여행비를 낼 수가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할수도 있었지만 웬지 자

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날 지행스님이 내게 말했다.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함께 탁발을 나가 보자고. 그때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조그마한 짚의 주지로 계셨기 때문에 학비 등 용돈을 타 쓰기 때문에 별 불편 없이 살고 있었지만 나의 은사스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환경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헤아리고 탁발을 권유하고 또 함께 동행해 주었던 지행스님. 나는 그때 지행스님과 더불어 대구 시장을 누비면서 최초로 마지막으로 한 바루 가득 탁발을 하여 그 덕분에 졸업여행 뿐 아니라 마지막 강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탁발에 관한 추억은 지행스님과 나만이 아는 일이지 아무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졸업할 무렵도 그랬다. 짐 하나 갖다 놓을 곳 없는 내게 스름없이 은사스님의 조그마한 암자로 안내해 준 일도 잊을 수 없다. 그때의 힘든 기억들이 어느만큼 나이를 먹고 나니 정말 돈 주



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되고 말았지만 그 덕분에 지행스님은 내 마음속 깊숙이에 자리하게 되었다.

요즘은 젊은 스님들 대부분은 구족을 싫어한다. 그 구족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인 구족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은사스님이나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한다. 그런데도 지행스님은 노령의 은사스님을 모시기 위해 다년간의 수좌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사스님이 계시는 사찰로 들어가 본인과는 맞지 않다고(살림하는 일) 하면서도 열심히 맞추어 살고 있다. 열심히 포교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틈틈이 자기만이 창출하고 표현해 가는 작품생활에도 게으름이 없다.

삶의 굴곡을 내 업력이라고 답답히 받아 삭히면서 하루하루의 수행을 다시 점검하는 도반 지행스님이 사는 통영의 푸른 바다. 그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 한,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딱한 공기가 우리들을 에워쌀지라도 스님의 해맑은 미소는 그득 피어 올라 그것을 정화시킬 것이다.

글 세원사 주지

Vertical sidebar with text: '잇없는 인생을 백련사 실산스님의 구도에 세이' and '가게' with a small image of a person.

Moder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현대결혼연구원) advertisement. Features a photo of a woman and text about marriage research and counseling.

Chamsun Education (참선교육) advertisement. Includes a table of dates and topics for the 53rd Chamsun Education course.

Jeonju Buddhist Education Institute (海東佛敎儀式敎育院) advertisement. Details courses for Buddhist practitioners and monks.